

2022년 경남지역 고용동향

2023. 2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3년 2월 1일 ~ 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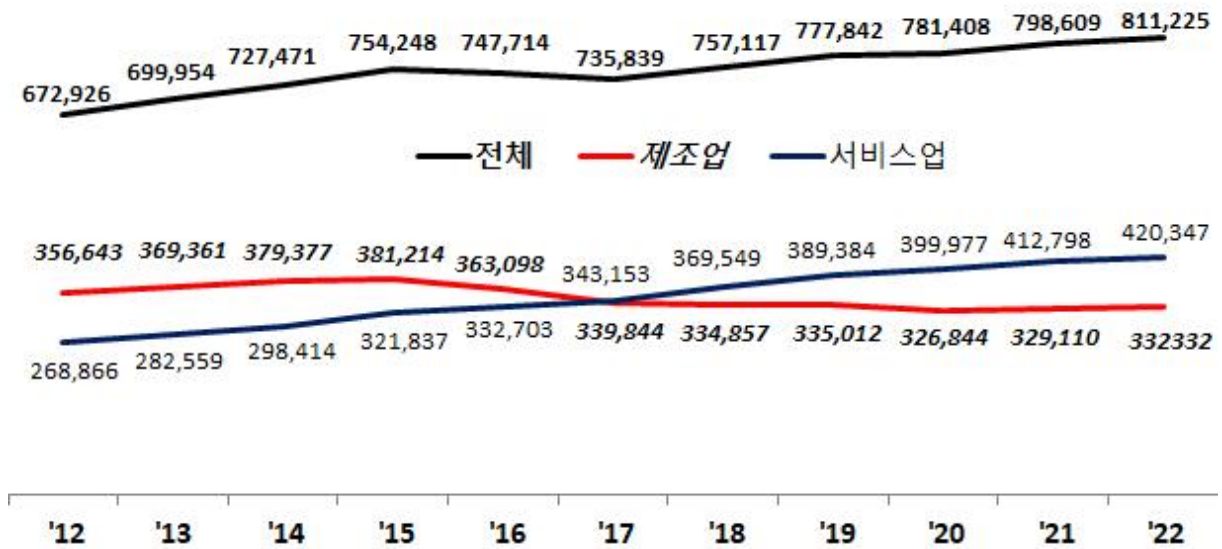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II.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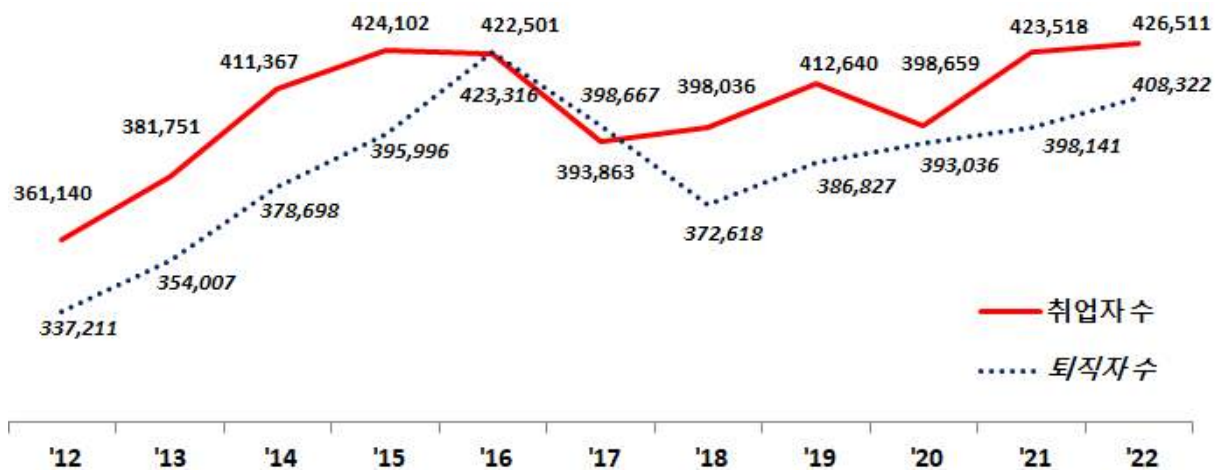
◎ 경남지역 근로자 수(연말 기준) 추이

(단위 : 명)



◎ 연간 경남지역 취업자 및 퇴직자 수 추이

(단위 : 명)



- 2022년 말 기준 경남지역 근로자 수가 81만 1,225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음. 제조업(+1.0%)과 서비스업(1.8%) 근로자 수가 모두 증가했으며, 제조업에서는 근로자 수 비중이 큰 ‘기계 및 장비’(+1.7%)와 ‘금속가공’(+3.6%), ‘자동차 및 트레일러’(+4.1%) 제조업에서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었음.

○ 업종별 근로자 수

· 제조업 : 33만 2,332명(1.0%▲)	· 서비스업 : 42만 347명(1.8%▲)
· 건설업 : 4만 1,407명(4.4%▲)	· 기 타 : 1만 7,139명(0.6%▲)

- 지역산업의 생성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사이에 자연 발생하는 퇴직인력(정년)을 20·30대가 본격적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제조업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20대와 30대의 신규취업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50대와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정년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의 빈자리를 20·30대 근로자가 메우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풀이됨.

- 또 한편으로 정년을 맞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장년 숙련 근로자들을 지역 내 산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한 해 동안 경남으로 3만 376명이 유입되었으나, 3만 9,166명이 유출되어 총 6,876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했음.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3만 376명 유입, 3만 9,166명 유출이 이루어져 8,790명이 순유출 했음.

제조업 근로자의 순유출이 컸던 지역은 부산시와 경기도, 서울시였으며, 이들 지역으로 이동한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이 아닌 타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업종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하 파견직), ‘도소매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었음.

○ 경남 제조업 근로자 순유출

(단위 : %)

경남 제조업 (유입-유출)	→ 부산 : 2,040명	제조(47.0), 도소매(11.5), 파견직(7.2), 숙박음식(6.0)
	경기 : 2,007명	제조(45.4), 도소매(11.5), 건설업(9.7), 파견직(8.7)
	서울 : 1,485명	파견직(26.6), 제조(17.7), 도소매(16.0), 운수창고(9.3)

Ⅲ.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 2022년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81만 1,223명임. 이는 전년 대비 1만 2,616명(+1.6%) 증가한 수임.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3만 8,143명(+0.7%),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2만 128명(+3.7%),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15만 1,954명(+0.2%)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만 1,000명(-0.6%)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

경남 규모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

	2019	2020	2021	2022			
				1Q	2Q	3Q	4Q
경상남도	777,842 (2.7)	781,408 (0.5)	798,609 (2.2)	807,401 (2.8)	810,378 (2.2)	814,533 (1.2)	811,225 (1.6)
10인 미만	223,678 (4.6)	229,526 (2.6)	236,562 (3.1)	255,617 (16.4)	229,703 (2.1)	234,668 (1.7%)	238,143 (0.7)
10인 이상 100인 미만	299,699 (0.4)	301,171 (0.5)	308,841 (2.5)	322,558 (3.9)	322,146 (3.7)	321,762 (3.1)	320,128 (3.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5,586 (-3.9)	98,606 (-6.6)	101,589 (3.0)	102,171 (-3.3)	103,019 (-1.0)	102,463 (-1.5)	101,000 (-0.6)
300인 이상	148,909 (10.5)	152,105 (2.1)	151,617 (-0.3)	157,055 (4.8)	155,510 (1.2)	155,640 (-1.6)	151,954 (0.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 2022년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42만 347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제조업 33만 2,332명(+1.0%), 건설업 4만 1,407명(+4.4%), 기타 1만 7,139명(+0.6%) 등 모든 업종(대분류)의 근로자 수가 일제히 증가했음. 특히 경남의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 2년 연속 근로자 수 증가를 보임.

경남 업종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

	2019	2020	2021	2022			
				1Q	2Q	3Q	4Q
경상남도	777,842 (2.7)	781,408 (0.5)	798,609 (2.2)	807,401 (2.8)	810,378 (2.2)	814,533 (1.2)	811,225 (1.6)
제조업	335,012 (0.0)	326,844 (-2.4)	329,110 (0.7)	331,085 (0.6)	331,041 (0.8)	330,577 (0.7)	332,332 (1.0)
서비스업	389,384 (5.4)	399,977 (2.7)	412,798 (3.2)	418,785 (4.4)	422,094 (3.0)	425,879 (1.1)	420,347 (1.8)
건설업	37,269 (0.4)	38,340 (2.9)	39,670 (3.5)	40,381 (4.3)	40,952 (4.6)	41,267 (4.6)	41,407 (4.4)
기타	16,177 (3.9)	16,247 (0.4)	17,031 (4.8)	17,150 (2.2)	16,291 (2.8)	16,810 (2.5)	17,139 (0.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2022년 말 기준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 6만 4,678명, ‘기타 운송장비’ 5만 9,761명, ‘금속가공제품’ 3만 6,375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5,806명, ‘전기장비’ 2만 6,708명 등임.

- 제조업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가운데, 업종별로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식료품’(+4.9), ‘자동차 및 트레일러’(+4.1), ‘금속가공제품’(+3.6), ‘의료·정밀·광학기기’(+2.8), ‘비금속 광물제품’(+2.4%), ‘기계 및 장비’(+1.7%) 등임.

반면 전년 대비 근로자 수 감소를 보인 업종은 ‘섬유제품’(-21.8%), ‘화학물질·화학제품’(-2.2%), ‘기타 운송장비’(-0.9%), ‘전기장비’(-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0.2%) 등이다.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

	2019	2020	2021	2022			
				1Q	2Q	3Q	4Q
제조업	335,012 (0.0)	326,844 (-2.4)	329,110 (0.7)	331,085 (0.6)	331,041 (0.8)	330,577 (0.7)	332,332 (1.0)
기계 및 장비	63,888 (-1.0)	63,171 (-1.1)	63,609 (0.7)	64,014 (0.3)	64,092 (1.6)	64,199 (1.8)	64,678 (1.7)
기타 운송장비	71,254 (5.4)	64,718 (-9.2)	60,293 (-6.8)	59,580 (-4.8)	58,817 (-4.5)	58,817 (-3.3)	59,761 (-0.9)
금속가공제품 (기계·가구 제외)	34,560 (-0.4)	34,173 (-1.1)	35,117 (2.8)	35,848 (4.1)	35,954 (4.3)	35,886 (3.7)	36,375 (3.6)
자동차 및 트레일러	34,678 (-2.5)	33,401 (-3.7)	34,399 (3.0)	34,697 (1.4)	34,726 (-0.4)	35,507 (2.8)	35,806 (4.1)
전기장비	21,610 (-0.6)	25,254 (16.9)	26,875 (6.4)	26,993 (4.6)	27,617 (6.1)	27,247 (2.0)	26,708 (-0.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2,518 (-1.5)	21,238 (-5.7)	21,119 (-0.6)	21,385 (-0.9)	21,238 (-1.7)	21,023 (-1.8)	21,087 (-0.2)
식료품	15,880 (1.7)	15,530 (-2.2)	16,625 (7.1)	17,001 (6.2)	17,223 (7.6)	17,202 (6.8)	17,446 (4.9)
1차 금속	15,649 (-5.7)	14,129 (-9.7)	14,300 (1.2)	14,309 (1.5)	14,293 (1.1)	14,403 (1.7)	14,602 (2.1)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장비	9,805 (0.3)	10,006 (2.0)	10,742 (7.4)	10,895 (4.3)	10,892 (2.3)	10,745 (0.6)	10,746 (0.0)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005 (-1.7)	8,937 (-0.8)	9,068 (1.5)	9,102 (-0.2)	9,060 (-0.9)	8,959 (-1.9)	8,866 (-2.2)
비금속 광물제품	6,949 (-4.9)	6,690 (-3.7)	6,788 (1.5)	6,808 (0.9)	6,819 (0.7)	6,941 (2.7)	6,952 (2.4)
의료·정밀·광학기기	5,210 (0.0)	5,504 (5.6)	5,415 (-1.6)	5,534 (0.3)	5,532 (1.5)	5,533 (0.9)	5,565 (2.8)
섬유제품 (의복제외)	5,798 (4.2)	5,733 (-1.1)	5,857 (2.2)	5,846 (-1.4)	5,585 (-5.6)	4,927 (-15.4)	4,581 (-21.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56 (-1.8)	3,950 (-0.2)	4,074 (3.1)	4,086 (0.9)	4,068 (-0.1)	4,013 (-0.8)	4,061 (-0.3)
기타	14,252 (-2.1)	14,410 (1.1)	14,829 (2.9)	14,987 (1.6)	15,125 (2.2)	15,175 (2.2)	15,098 (1.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12만 5,321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9,183명, ‘전문·과학 및 기술’ 3만 8,011명, ‘교육’ 3만 674명, ‘숙박 및 음식점’ 2만 9,711명, ‘부동산’ 2만 8,748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만 6,515명, ‘운수 및 창고’ 2만 3,944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2019	2020	2021	2022			
				1Q	2Q	3Q	4Q
서비스업	389,388 (5.4)	399,736 (2.7)	412,798 (3.3)	418,785 (4.4)	422,094 (3.0)	425,879 (1.1)	420,347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107,672 (8.2)	113,985 (5.9)	121,536 (6.6)	123,617 (7.2)	125,162 (5.7)	127,265 (4.7)	125,321 (3.1)
도매 및 소매업	45,251 (3.8)	46,376 (2.5)	48,781 (5.2)	48,724 (4.0)	48,838 (3.2)	49,113 (1.7)	49,183 (0.8)
전문, 과학 및 기술	33,067 (4.5)	35,245 (6.6)	36,464 (3.5)	36,499 (4.1)	36,761 (2.8)	37,510 (3.4)	38,011 (4.2)
교육	27,281 (6.3)	28,321 (3.8)	29,975 (5.8)	29,940 (5.3)	30,963 (4.1)	30,795 (1.9)	30,674 (2.3)
숙박 및 음식점업	27,773 (16.7)	27,522 (-0.9)	27,518 (0.0)	27,811 (7.7)	28,763 (8.0)	29,293 (7.9)	29,711 (8.0)
부동산업	28,011 (7.6)	29,143 (4.0)	28,999 (-0.5)	28,507 (0.0)	28,487 (-1.5)	28,692 (-2.1)	28,748 (-0.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24,780 (0.6)	24,500 (-1.1)	25,745 (5.1)	26,011 (3.8)	26,632 (3.2)	26,948 (2.7)	26,515 (3.0)
운수 및 창고업	26,105 (0.1)	24,831 (-4.9)	24,197 (-2.6)	24,071 (-2.2)	24,038 (-1.7)	23,929 (-1.8)	23,944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4,380 (0.0)	24,875 (2.0)	23,659 (-4.9)	28,310 (6.8)	26,023 (-3.3)	25,574 (-18.5)	22,096 (-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6,551 (2.5)	16,738 (1.1)	17,080 (2.0)	16,979 (-0.9)	17,158 (-1.3)	17,223 (-0.6)	16,994 (-0.5)
금융 및 보험업	15,990 (0.5)	15,903 (-0.5)	15,747 (-1.0)	15,487 (-1.6)	15,672 (0.2)	15,605 (-0.5)	15,692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7,489 (3.6)	7,177 (-4.2)	7,211 (0.5)	7,208 (6.6)	7,769 (7.7)	7,907 (6.9)	7,406 (2.7)
정보통신업	5,037 (6.2)	5,120 (1.6)	5,886 (15.0)	5,621 (5.8)	5,828 (5.5)	6,025 (2.5)	6,052 (2.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사회복지와 관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업종의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해제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모습을 보임.

3) 경상남도 연령별 근로자

- 2022년 말 기준 경남의 연령별 근로자 수를 보면, 40대(40세~49세) 근로자 수가 21만 1,876명, 50대 근로자 수가 20만 8,190명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30대 15만 9,835명, 60세 이상 13만 3,394명, 29세 이하 9만 7,930명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

	2019	2020	2021	2022			
				1Q	2Q	3Q	4Q
전체	777,842 (2.7)	781,408 (0.5)	798,609 (2.2)	807,401 (2.8)	810,378 (2.2)	814,533 (1.2)	811,225 (1.6)
제조업	335,012 (0.0)	326,844 (-2.4)	329,110 (0.7)	331,085 (0.6)	331,041 (0.8)	330,577 (0.7)	332,332 (1.0)
29세 이하	100,755 (0.3)	99,933 (-0.8)	99,909 (0.0)	100,350 (-0.5)	100,558 (-1.6)	99,417 (-2.9)	97,930 (-2.0)
제조업	40,334 (-3.9)	37,682 (-6.6)	36,912 (-2.0)	37,416 (-4.1)	36,975 (-3.6)	36,397 (-2.6)	36,505 (-1.1)
30~39세	176,590 (-2.1)	168,340 (-4.7)	164,239 (-2.4)	162,610 (-2.8)	161,721 (-2.9)	161,027 (-3.1)	159,835 (-2.7)
제조업	88,852 (-3.1)	83,313 (-6.2)	79,768 (-4.3)	79,434 (-5.0)	78,317 (-4.6)	77,294 (-4.6)	76,810 (-3.7)
40~49세	211,922 (1.4)	211,167 (-0.4)	211,840 (0.3)	211,601 (0.8)	211,802 (0.3)	211,877 (-0.3)	211,876 (0.0)
제조업	96,063 (-0.2)	94,903 (-1.2)	94,900 (0.0)	95,583 (0.7)	95,377 (0.6)	95,051 (0.5)	95,485 (0.6)
50~59세	191,000 (5.7)	195,051 (2.1)	202,546 (3.8)	204,672 (4.4)	205,360 (4.1)	207,008 (2.8)	208,190 (2.8)
제조업	84,015 (2.3)	83,300 (-0.9)	85,612 (2.8)	86,118 (3.1)	86,605 (3.2)	86,843 (2.4)	87,180 (1.8)
60세 이상	97,575 (12.7)	106,917 (9.6)	120,075 (12.3)	128,168 (14.8)	130,937 (12.8)	135,204 (10.2)	133,394 (11.1)
제조업	25,748 (12.7)	27,646 (7.4)	31,918 (15.5)	32,534 (16.3)	33,767 (15.0)	34,992 (14.7)	36,352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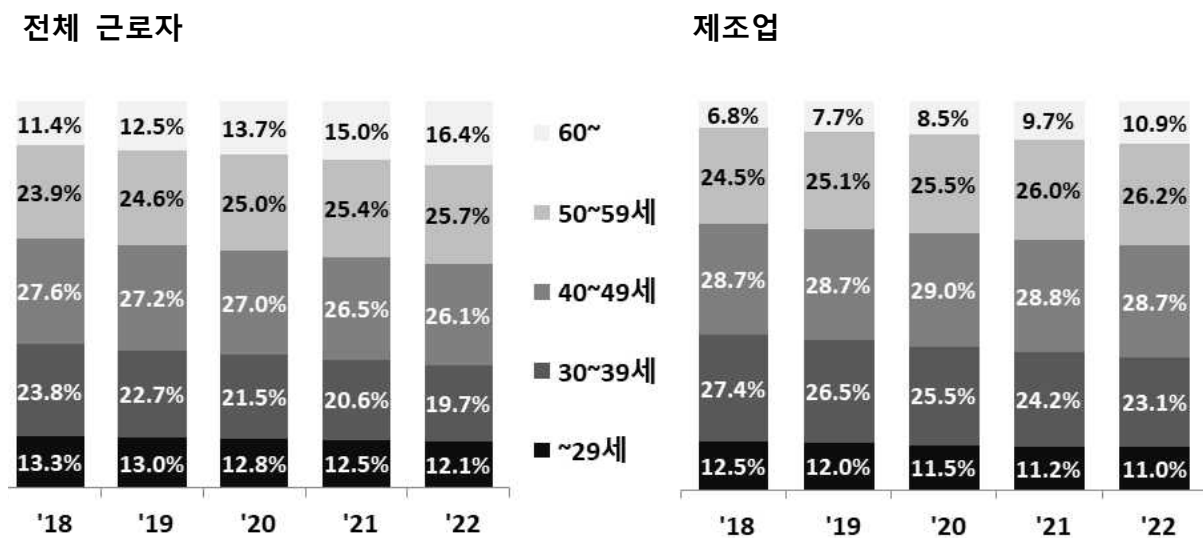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분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제조업을 비롯한 경남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끈 연령대는 50대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와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2.8%, 11.1%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 근로자 수는 각각 2.0%, 2.7% 감소했음.
이는 제조업 근로자 수 변화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실제로 경남 연령별 근로자 수 비중을 보면 2018년 11.4% 수준이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22년 16.4%로 5.0%p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 근로자 수 비중은 각각 4.1%p, 1.2%p 줄었음.
이러한 추세는 제조업 근로자 수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8년 6.8%에서 2022년 10.9%로 3.9%p 늘었고, 20대와 30대 근로자 수 비중은 각각 4.3%p, 1.5%p 줄었음.
제조업을 비롯한 경남 근로자의 연령대별 비중이 자연적인 고령화 추세에 20·30대 청년인력의 추가 투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 연령별 근로자 수 비중



2.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2년 경남 취업자 수는 42만 6,511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으나,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 9,419명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모습을 보임. 더불어 퇴직자 수는 40만 8,322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이 중 제조업 퇴직자 수는 12만 5,953명으로 전년 대비 58명 줄었음.
- 취업자 중 경력 취업자(재취업) 수는 37만 9,633명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신규 취업자 수도 4만 6,878명으로 0.1% 늘었음.
이 중 제조업의 경우 경력 취업자 수는 11만 4,243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반면, 신규 취업자 수는 1만 5,176명으로 3.8% 증가했음.
- 신규취업의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20대와 30대 신규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한 모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2년 연간 20대 신규취업자 수는 2만 7,629명으로 전년 대비 1.7%, 30대는 5,562명으로 6.8% 증가했음. 더욱이 제조업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신규취업자 수가 각각 1.7%, 13.5%로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이는 지역산업의 생성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정년)인력을 20·30대가 본격적으로 대체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풀이됨. 실제로 타 연령대와 달리 20·30대 신규취업자 수 증가와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경남의 연간 퇴직자 수는 40만 8,322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음. 연령별로는 정년을 맞는 60세 이상이 퇴직자 수가 8만 8,5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8만 5,112명), 20대(8만 3,589명), 40대(8만 3,166명), 30대(6만 7,870) 순으로 나타났음.
- 주목할 점은 60세 이상 퇴직자 수 증가와 함께 60세 이상 재취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지난 3년간 60세 이상 퇴직자 수는 2020년 14.8%, 2021년 8.1%, 2022년 8.7%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재취업자 수 역시 2020년 8.5%, 2021년 17.9%, 2022년 9.1% 증가했음. 특히 60세 이상 근로자의 이러한 고용시장 추세는 제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장년 숙련 근로자를 지역 내 산업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남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

	2020		2021		2022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취업	398,659 (-3.4)	117,412 (-10.0)	423,518 (6.2)	130,635 (11.3)	426,511 (0.7)	129,419 (-0.9)
신규취업	46,202 (-3.5)	11,395 (-6.5)	46,854 (1.4)	14,622 (28.3)	46,878 (0.1)	15,176 (3.8)
20~29세	26,128 (-7.5)	7,159 (-15.0)	27,177 (4.0)	8,548 (19.4)	27,629 (1.7)	8,693 (1.7)
30~39세	3,513 (13.8)	1,521 (32.3)	5,208 (48.2)	3,292 (116.4)	5,562 (6.8)	3,735 (13.5)
40~49세	3,258 (-10.0)	906 (4.3)	2,939 (-9.8)	1,034 (14.1)	2,700 (-8.1)	1,018 (-1.5)
50~59세	6,443 (-0.9)	1,127 (5.5)	5,359 (-16.8)	1,014 (-10.0)	4,891 (-8.7)	1,012 (-0.2)
60~69세	6,860 (7.1)	682 (1.2)	6,171 (-10.0)	734 (7.6)	6,096 (-1.2)	718 (-2.2)
재취업	352,457 (-3.4)	106,017 (-10.3)	376,664 (6.9)	116,013 (9.4)	379,633 (0.8)	114,243 (-1.5)
20~29세	68,244 (-2.3)	22,629 (-9.7)	72,663 (6.5)	24,350 (7.6)	70,524 (-2.9)	22,947 (-5.8)
30~39세	64,959 (-12.6)	25,631 (-16.4)	66,152 (1.8)	26,063 (1.7)	64,124 (-3.1)	25,322 (-2.8)
40~49세	81,436 (-6.2)	28,494 (-9.5)	83,543 (2.6)	29,882 (4.9)	82,693 (-1.0)	29,042 (-2.8)
50~59세	76,781 (-1.0)	20,613 (-8.1)	82,325 (7.2)	23,693 (14.9)	83,762 (1.7)	23,674 (-0.1)
60~69세	61,037 (8.5)	8,650 (1.0)	71,981 (17.9)	12,025 (39.0)	78,530 (9.1)	13,258 (10.3)
퇴직	393,036 (1.6)	128,262 (-1.2)	398,141 (1.3)	126,011 (-1.8)	408,322 (2.6)	125,953 (0.0)
20~29세	80,412 (-2.8)	26,353 (-6.9)	83,153 (3.4)	26,669 (1.2)	83,589 (0.5)	25,372 (-4.9)
30~39세	69,117 (-6.5)	29,241 (-7.2)	67,311 (-2.6)	27,712 (-5.2)	67,870 (0.8)	28,043 (1.2)
40~49세	84,931 (-0.3)	32,186 (-0.2)	82,989 (-2.3)	31,037 (-3.6)	83,166 (0.2)	30,380 (-2.1)
50~59세	83,163 (4.9)	26,348 (3.8)	83,186 (0.0)	25,105 (-4.7)	85,112 (2.3)	25,284 (0.7)
60~69세	75,413 (14.8)	14,134 (13.6)	81,502 (8.1)	15,488 (9.6)	88,585 (8.7)	16,874 (8.9)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는 전년동기 대비 근로자 증감

- 경남의 2022년 연간 퇴직자 수가 2.6% 증가한 가운데, 퇴직사유별로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23만 8,346명), ‘계약만료, 공사종료’(9만 5,969명),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이하 불황에 의한 퇴사)(4만 2,746명), ‘폐업, 도산’(1만 804명), ‘정년’(5,022명),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4,942명) 순으로 나타났음.
- 이 중 퇴직사유별 증감을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전년 대비 7.4% 늘었고, 비중도 2.6%p 높아졌음. 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공사종료’(-3.1%), ‘불황에 의한 퇴사’(-8.7%), ‘폐업, 도산’(-7.6%), ‘해고, 권고사직’(-3.5%)에 의한 퇴사는 감소했고, 비중도 줄어들었음.
자발적 퇴사의 증가와 큰 폭의 경력직 취업자 수 증가는 경남 내 이직 성향이 높아졌음을 의미함.
- 제조업 퇴직사유별 퇴직자 수도 전체 퇴직사유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폐업, 도산’에 의한 퇴직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하고 비중도 0.4%p 상승한 것이 특이점임.

경남 2022년 퇴직사유별 퇴직자 수

퇴직사유		전체	증감 (‘21 대비)	제조업	증감 (‘21 대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건	238,346	7.4%	88,695	4.1%
	비중	58.4%	+2.6%p	70.4%	+2.8%p
계약만료, 공사종료	건	95,969	-3.1%	11,662	-0.7%
	비중	23.5%	-1.4%p	9.3%	-0.1%p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건	42,746	-8.7%	15,415	-19.4%
	비중	10.5%	-1.3%p	12.2%	-2.9%p
폐업, 도산	건	10,804	-7.6%	4,246	12.4%
	비중	2.6%	-0.3%p	3.4%	+0.4%p
정년	건	5,022	6.6%	2,548	2.7%
	비중	1.2%	0.0%p	2.0%	+0.1%p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건	4,942	-3.5%	1,091	-15.8%
	비중	1.2%	-0.1%p	0.9%	-0.2%p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건	3,394	-23.4%	1,261	-21.1%
	비중	0.8%	-0.3%p	1.0%	-0.3%p
기타	건	7,099	59.3	1,035	30.5%
	비중	1.7%	+0.6%p	0.8%	+0.2%p
총계		408,322	2.6%	125,953	0.0%

3. 경상남도 근로자 경력이동 현황

○ 2022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10만 1,809명이며,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직해온 근로자 수는 9만 4,933명을 기록해 총 6,876명의 근로자 순유출을 보였음.

특히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이동이 두드러졌음. 경남에서 3만 9,166명이 전출했고, 경남으로 3만 376명이 전입해와 8,790명의 순유출을 보였음.

○ 지역별 유출 근로자수를 보면 부산시로 3만 2,437명, 서울시 2만 3,741명, 경기도 1만 3,202명, 울산시 6,051명, 경상북도 5,733명, 대구시 3,886명, 전라남도 3,402명, 충청남도 2,838명 순으로 이동 근로자 수가 많았음.

반대로 유입 근로자 수를 보면, 부산시로부터 3만 2,041명, 서울시 2만 3,533명, 경기도 10,469명, 울산시 5,828명, 경상북도 5,033명, 대구시 3,948명, 전라남도 2,658명, 충청남도 2,273명 순임.

2022년 경남지역 제조업 근로자 타 지역 이동 현황

(단위 : 명)

시·도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시·도	경남 → 타지역	타지역 → 경남	순 유출입
부산	32,437 (12,353)	32,041 (10,313)	-396 (-2,040)	충북	1,929 (781)	1,377 (509)	-552 (-272)
서울	23,741 (8,015)	23,533 (6,530)	-208 (-1,485)	인천	1,849 (727)	1,768 (544)	-81 (-183)
경기	13,202 (5,444)	10,469 (3,437)	-2,733 (-2,007)	대전	1,789 (605)	1,577 (375)	-212 (-230)
울산	6,051 (3,100)	5,828 (2,672)	-223 (-428)	전북	1,561 (612)	1,362 (417)	-199 (-195)
경북	5,733 (2,339)	5,033 (1,790)	-700 (-549)	강원	1,272 (329)	1,209 (240)	-63 (-89)
대구	3,886 (1,342)	3,948 (1,170)	62 (-172)	제주	945 (222)	761 (137)	-184 (-85)
전남	3,402 (1,517)	2,658 (978)	-744 (-539)	광주	825 (270)	823 (199)	-2 (-71)
충남	2,838 (1,395)	2,273 (985)	-565 (-410)	세종	349 (115)	273 (80)	-76 (-35)
				전체	101,809 (39,166)	94,933 (30,376)	-6,876 (-8,79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는 제조업 근로자 수

- 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집계한 순유출입을 보면, 경남에서 국내 16개 시·도 전체로 전유출이 이루어졌고, 특히 경기도에 2,733명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순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순유출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경남 제조업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 수는 3만 9,166명이며, 타 지역에서 경남의 제조업으로 이직해온 근로자 수는 3만 376명으로 총 8,790명의 제조업 근로자 순유출이 일어났음.
- 특히 부산시와 경기도로 각각 2,040명, 2,007명의 제조업 근로자 순유출을 보여 가장 많았고, 서울시로도 1,485명의 순유출을 나타냈음.
경남 제조업 근로자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서 어떤 업종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 결과 44.9%가 같은 '제조업'으로 이동했고, 다음으로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7%), '도매 및 소매업'(10.6%), '건설업'(6.3%), '숙박 및 음식점업'(5.0%), '운수 및 창고업'(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순이었음.

경남 제조업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업종 비중

경상남도 → 부산시		경상남도 → 경기도		경상남도 → 서울시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제조업	47.0%	제조업	45.4%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6%
도매 및 소매업	11.5%	도매 및 소매업	11.5%	제조업	17.7%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2%	건설업	9.7%	도매 및 소매업	16.0%
숙박 및 음식점업	6.0%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7%	운수 및 창고업	9.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	숙박 및 음식점업	6.6%

- 이 중 제조업 근로자의 순유출이 두드러졌던 부산시와 경기도, 서울시로는 어떤 업종으로 이동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부산시로는 ‘제조업’(47.0%) 다음으로 ‘도소매업’(11.5%), ‘숙박 및 음식점업’(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 경기도로는 ‘제조업’(45.4%) 다음으로 ‘도소매업’(11.5%), ‘건설업’(9.7%),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6%) 순으로 이동했음.
- 한편 서울시로 이동한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6.6%)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제조업’(17.7%), ‘도소매업’(16.0%), ‘운수 및 창고업’(9.3%), ‘숙박 및 음식점업’(6.6%) 순이었음.